

kiri Weekly

2011.10.10 제151호

이슈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서울 총회 논의 결과와 의미

금융보험 해설

자본시장제도 이해(3): 메자닌 금융(Mezzanine Capital)

국내금융 뉴스

9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정부 대응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해외금융 뉴스

세계 _ 무디스, 이탈리아 국가 신용등급 3단계 강등
북미 _ 미국, 경기침체 우려 확대
유럽 _ 유럽의 금융위기 조짐과 EU의 조기 대응
_ 그리스 재정적자 감축 계획 변경
_ 유로존 10월 위기설
일본 _ 일본 기업, 3/4분기 경기체감지수 큰 폭으로 개선
중국 _ 대중국 환율법안, 미 상원 통과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서울 총회 논의 결과와 의미

김해식 연구위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

요약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2011년 서울 총회는 전면 개편된 국제보험감독기준의 채택,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보험 SIFI) 지정 및 감독기준이라는 세 가지 이슈에서 주목할 만한 논의들을 보여줌.
- IAIS 서울 총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을 반영하여 전면 개편한 보험핵심원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s)을 일괄 승인하고, 개정 ICP를 토대로 각국의 자체평가와 동료국 간 상호평가를 2012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함.
 - 개정 보험핵심원칙은 개별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에 주목함은 물론 그룹단위 감독과 시스템 위험에 대응한 건전성 감독 및 감독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체제를 재정비함.
 - 은행권 바젤협약의 도입 과정을 고려해 볼 때, ICP의 변화는 각국의 감독방향을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점차 원칙/준칙중심에서 규정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들은 장래 사업모형 재구축의 고려요소로서 ICP를 감독환경의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IAIS 서울 총회는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Com Frame)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의 지정 및 감독에 대한 밑그림을 보여줌.
 - IAIS 서울 총회는 공통감독체계의 완료목표시점인 2013년 7월까지의 로드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한 6개 SIFI 기준으로 2012년 6월까지 자료 분석을 진행할 것임을 제시함.
 - 한편, G-SIFI 지정은 물론 N-SIFI 지정이 국내 보험산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IAIS 서울 총회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보험감독의 틀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무엇보다 자기자본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국제감독기준이 국내 감독의 틀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사업모형을 고려해야 할 것임.

1. 검토 배경



- 지난 10월 1일 막을 내린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¹⁾의 2011년 서울 총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개되어 온 금융규제에 관한 세계 보험감독자들의 논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음.
 - IAIS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반영하여 “국경 간, 권역 간 보험감독의 조화와 협력”을 목표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IAIS 제18차 연차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함.
 - IAIS는 이번 서울 총회에서 보험감독에 관한 국제기준인 보험핵심준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s)의 전면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글로벌 보험그룹에 대한 평가기준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의 식별 및 감독에 관한 이슈를 논의함.
 - 서울 총회기간 중 감독자회의(committee meetings)와 연차 세미나(annual conference)를 통해 보험권과 타 금융권의 시스템위험 및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비교, 거시건전성 감독,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됨.
- 본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보험감독규제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 보험 산업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이번 IAIS 서울 총회에서 논의되거나 최종 채택된 중요 의제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함.

2. 주요 의제의 내용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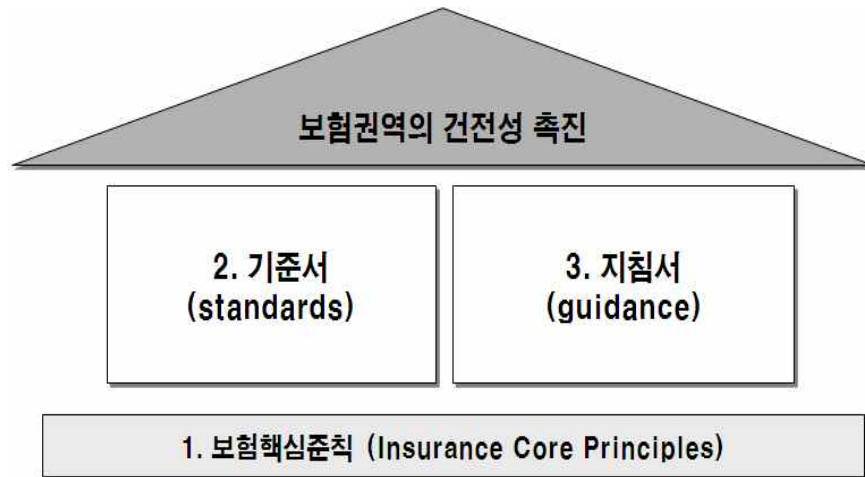
가. 새 국제보험감독기준: 보험핵심준칙(ICP)²⁾의 전면 개편

- IAIS는 효과적이고 국제적 일관성을 갖춘 국제보험감독기준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시한 보험감독핵심준칙을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을 반영하여 전면 개편하고 서울 총회에서 일괄 승인함.

1) IAIS는 금융감독에 관한 3대 국제기구 중의 하나로서 은행업권에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금융투자업권에는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가 있음.
 2) 여기서 「보험핵심준칙」이란 「보험감독원칙」을 의미함.

- IAIS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MF와 세계은행(OECD)의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보험감독 핵심준칙을 검토한 후, 동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핵심준칙, 기준서, 세부 지침서 순의 서열 구조를 제시함.

〈그림 1〉 국제보험감독기준의 구성과 위계 구조



- 개정 「보험감독핵심준칙」에서는 지급능력과 관련하여 내부통제를 포함한 위험관리가 강조되고 보험계약에 관한 가치평가원칙이 정비되는 한편, 거시건전성 감독, 청산, 감독자 간 협력 및 국경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새로 추가됨(〈표 1〉의 굵은 글씨 참조).
- 그동안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은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여겨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과 함께 시스템의 건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감독철학이 변화하면서 ‘거시건전성 감독원칙’이 강조됨.
- 또한, 금융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 장애로 인해 금융서비스 흐름에 단절이 생겨 실물경제에 심각한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 즉 시스템위험(systemic risk)³⁾에 대응하여 IAIS는 각국 보험감독자 간 조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함.
- 또한, 서울 총회에서는 일괄 승인된 개정 ICP를 토대로 각국의 자체평가와 동료국 간 상호평가를 2012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함(개정 ICP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 참조).

3)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정의한 것임.

〈표 1〉 개정 「보험핵심준칙」

ICP	보험핵심준칙의 내용	2003년 준칙과 비교
1	감독자의 목적, 권한과 책임	ICP(2003) 2 개정
2	감독자	ICP(2003) 3, 4
3	감독자 간 정보교환 및 기밀유지	ICP(2003) 5 개정
4	사업인가	ICP(2003) 6 개정
5	임원의 적격성	ICP(2003) 7 개정
6	통제 변화와 포트폴리오 이전	ICP(2003) 8 개정
7	기업지배구조	ICP(2003) 9 개정
8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ICP(2003) 10, 18, 19
9	감독자의 검토 및 보고	ICP(2003) 12, 13, 18, 19
10	적기시정조치	ICP(2003) 14 개정
11	강제이행	ICP(2003) 15 개정
12	청산 및 퇴출	ICP(2003) 16, 18, 19
13	재보험 및 기타 위험전가	ICP(2003) 19 개정
14	가치평가	ICP(2003) 20 개정
15	자산운용	ICP(2003) 21, 22
16	지급능력목적의 전사적 위험관리	ICP(2003) 18, 19
17	자본적정성	ICP(2003) 23 개정
18	중개기관	ICP(2003) 24 개정
19	영업행위 (소비자보호)	ICP(2003) 25 개정
20	정보공시	ICP(2003) 26 개정
21	보험사기 대응	ICP(2003) 27 개정
22	자금세탁대응 및 테러자금차단	ICP(2003) 28 개정
23	그룹단위 감독	ICP(2003) 17 개정
24	거시건전성감독	ICP(2003) 11,17 통합 신설
25	감독자 간 협력	신설
26	위기관리 시 국가 간 협력	신설

나. 다국적 보험그룹(AIG)에 대한 감독체계(ComFrame) 논의

■ 세계 보험시장 매출의 50%를 차지하고⁴⁾ 있는 손해보험 상위 18개사와 생명보험 상위 27개사 등 다국적 보험그룹(AIG: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에 대한 국가별, 권역별 일관된 감독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4) 이승준(2011)에서 재인용. 원전은 Swiss Re(2010), *Sigma* No.2/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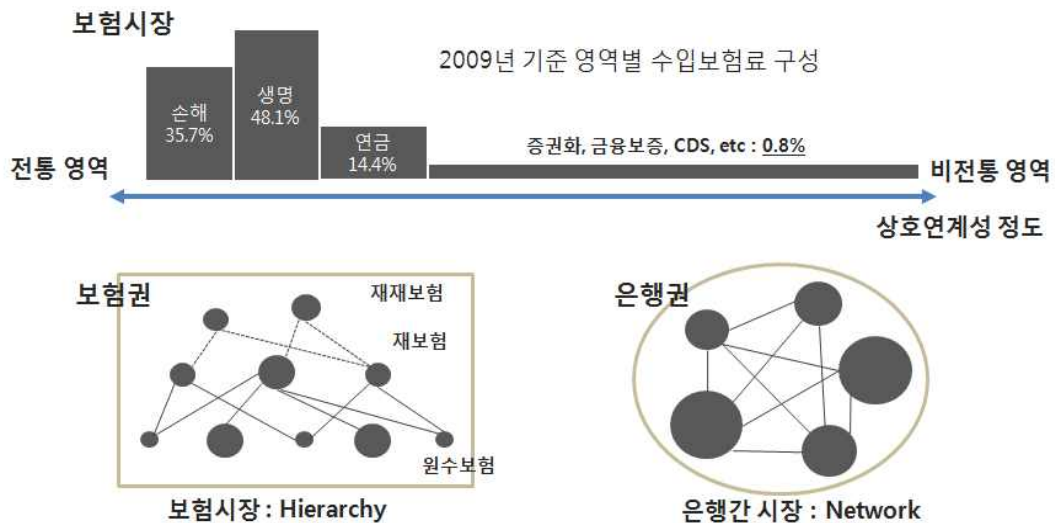
- 다국적 보험그룹에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험그룹은 물론 여러 금융권역에 걸친 복합금융그룹도 포함함.
 - 다국적 보험그룹은 국가별, 권역별 규제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문제(regulatory arbitrage)가 있어 그룹단위 감독(group-wide supervision)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IAIS 서울 총회는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ComFrame: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AG)의 완료목표시점인 2013년 7월까지의 로드맵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최근에는 동 프로젝트의 목적, 범위 등을 정리한 「공통감독체계 개념보고서」를 공표하고 보험업계 등으로부터 폭넓은 피드백(Feedback)을 받는 등 중간 점검을 진행 중임.
- 공통감독체계는 보험그룹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되는 제반 위험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험그룹 본사가 위치한 본국과 주재국 감독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감독자와 감독대상인 보험그룹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
- 다국적 보험그룹 감독에 필요한 감독자들의 국경 및 권역 간 협조 및 정보공유가 이슈로 떠오르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들에 대한 공통감독체계 마련이 중요해짐.
 - 그룹단위 감독의 효과적 작동을 목적으로 공통감독체계는 적용의 범위, 보험그룹의 구조 및 사업 범위, 양적 질적 요건, 감독자 간의 협력 및 감독자와 보험그룹간의 상호작용, 감독관할 등 총 5개의 모듈(Modules)로 구성됨.

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

- IAIS 서울 총회는 글로벌 SIFI(G-SIFI) 선정을 위한 6개 기준을 토대로 2012년 6월까지 자료 분석을 완료하고, 의견수렴(Consultation) 과정을 거치기로 합의함.
- IAIS가 제시한 6개 요소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성 부족이라는 기존의 3가지 기준 이외에 복잡성, 글로벌 영업수준, 비전통형 사업행위의 기준이 추가된 것으로 이는 BIS에서 제시한 추가 기준과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한 요소가 반영된 것임.
 - IAIS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업(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감독 및 규제와 관련하여 보험권의 SIFIs(SIIs) 지정 및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금융안정위원회(FSC)⁵⁾를 구성함.

- 한편, IFSB/BIS/IMF는 2010년 보고서(「SIFI의 도덕적 해이 축소」)에서 SIFI를 “규모, 상호연관성 및 복잡성, 대체성 부족으로 인해 해당 금융기업의 실패가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기업”으로 정의함.
- IAIS는 보험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보험회사와 은행 간 사업모형 차이, 그리고 그 차이가 시스템적 중요성에서 가지는 의미를 검토함.
- 보험산업은 전반적으로 은행산업에 비해 시스템적 중요도는 낮지만, 다른 금융부문에서 초래된 시스템위험에 취약함.

〈그림 2〉 전통형 및 비전통형 보험업과 상호연계성



- 또한 전통적 보험영역을 벗어나면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아질 수 있는 활동이 존재하고 금융권역간 융합 현상에 따라 동 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로 지정되면, 해당 보험회사는 기존의 자기자본규제 외에도 BIS III와 유사한 추가적인 자본규제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5) Financial Stability Committee(FSC).

3. IAIS 서울 총회의 보험규제 논의의 시사점



■ ‘IAIS 2011년 서울 총회’는 감독 틀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새롭게 채택된 국제보험감독기준 개정안이나 다국적 보험그룹에 대한 공통감독체계와 SIFI 규제 논의는 기존의 감독 틀이 전면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 국제보험감독체계는 각국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준(원)칙중심(principle-based)이나, 금융 규제의 일관성과 규제의 예측성 제고 차원에서 은행권의 바젤감독체계와 유사하게 규정중심(rule-based)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IAIS 서울 총회는 향후 자본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과 함께 국제보험감독기준이 국내 보험감독의 일부로 작용할 것이란 점에서 ICP에 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 보험감독환경의 변화 요인 중 ICP요인이 향후 주목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자본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회사는 이러한 요인들에 주목하여 사업모형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내 보험회사가 G-SIFI로 지정될 가능성은 미미하며, N-SIFI의 경우에서도 연계성, 대체 가능성 기준에서 보면 국내 보험회사가 시스템위험 유발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kiri](#)